

<고려시기 양온서의 기능과 역할> 토론문

경기도교육청 황현정

1. 들어가며

인간의 삶에서 술은 중요한 물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활사 연구의 한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와 민의 삶을 연계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술은 중요한 관행과 풍습으로 혹은 국가의 주세, 주류 무역 등 세금, 무역 등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 시스템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역사 연구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교적으로 사치와 검약으로 절제된 선비의 삶을 숭상했던 조선시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현대와 고려시대를 연동하여 바라보게 해주며, 어떤 측면에서 술을 매개로 시대를 이어서 관망하고 인간 삶으로서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역사적 소재, 연구 소재로 보입니다.

글은 현재 사료 검토가 끝나고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결될 전체 글의 구조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의견을 드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과도하거나 곡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 내용 의견

첫째, 양온서의 기능이 단순한 술의 공급 역할에서 나아가 국가 의례와 국왕의 통치 행위 보조, 친위세력 육성 및 왕권 강화와 연관하여 규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료에서 검토된 내용 이외에, 제례의 일반적 역할과 기능, 왕의 통치 행위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등을 선행된 연구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보완한다면 제주, 술과 양온서의 역할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¹⁾ 고려 태묘 제례만 보더라도 네 가지 의주가 현전하

1) 한정수, 2014, 「고려 태조대 팔관회(高麗 太祖代 八關會) 선행과 그 의미」,

는데, 국왕의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제례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현관이 차이가 있고, 때로 현관은 동일하지만 제주의 사용이 다릅니다. 제주 중 음복주가 확인되는데, 삼주는 제례 이후 분사하는 분사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품계의 고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청주, 그 다음의 석주, 가장 낮은 사주 순으로 분배하기도 하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온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되, 결국 술을 소재로 글이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입체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 기존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되기를 제안 드립니다.

둘째, 양온서에서 생산되는 것이 결국 술이며 그것의 유통까지 다룰 수는 없겠으나, 이 내용이 입체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술의 경제사 즉, 가격, 제조된 양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정리되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제례 및 연회의 횟수 등 왕의 정치적 행위로서 벌어진 행사의 건수 등을 토대로 추정치 정도는 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양온서 직제 개편이나 변천 등 사료를 검토 내용이 상당한데, 전반적으로 나열되는 방식이어서 검토된 사료의 단순한 정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천 과정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여 한눈에 일별할 수 있도록 개요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각 장별 소주제의 사료 검토 내용을 <표>를 작성하셔서 정리하시면 한층 간결하게 개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양온령, 양온승, 양온령 동정직 등 직제에 대한 논의가 왕의 통치 행위 주제 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 장 앞절에서 정리하여 다루기를 의견 드립니다. 통치 행위 절에서는 이 직에 통해 권력에 이르기도 하였던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 양온서의 역할과 기능의 비중을 한층 더 서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양온서와 술에 대한 서술이 전반적으로 혼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사료 내용을 재편하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동문화연구』 86, 195-2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정수,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1-44, 한국사학회; 윤이흠, 2002, 「고려 종교사상의 특성과 흐름」,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우성, 2017, 「고려 전기 태묘 제례의 酒器진설과 祭酒사용」, 한신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3. 나가며

역사는 현재와 직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본 글이 다루고 있는 ‘술’을 소재로 한 ‘양온서’ 역사 소재는 현재까지도 매우 생생한 민인의 삶의 요소입니다. 애환을 위무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술의 역사가 고려시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철되기도 한 조선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술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술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글이 되어, 그 편견을 일소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좋은 글로 완성되어, 민인의 삶을 이해하는 생활, 정치, 경제의 영역을 총합적으로 살피는 역사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견을 줄입니다.